

# 아시아 PC 시장 본격 경쟁체제

## 신증설 플랜트 무더기 가동 ... 증설경쟁으로 가격경쟁 불가피

아시아의 PC(Polycarbonate) 시장이 2003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할 전망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타이, 타이완에서 진행되고 있는 PC 플랜트 신증설이 2002년 말 완료돼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의 공급과잉물량 유입이 불가피해 시장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PC 가격은 톤당 2000달러 정도로 인하될 것으로 보여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현재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저급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아시아에서는 PC 시장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몇년간 PC 플랜트 증설을 진행해 왔는데 ASEAN, 타이완, 한국의 증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2002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타이에서는 Bayer이 10만톤을 증설해 15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외에 Teijin 그룹의 자회사 TPS도 싱가포르의 Jurong Island에 No.4 5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Teijin의 싱가포르 플랜트는 2002년 11월말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는 일산화탄소 처리가 문제로 등장했으나 공급원인 Singapore Syngas가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일산화탄소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Teijin 그룹은 2002년 말까지 PC 18만톤 생산체제를 확립해 주력품목인 광학용 뿐만 아니라 일반용 개척도 강화할 방침이다.

타이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타이완 합작 PC 플랜트도 2002년 말에는 가동에 들어간다. Asahi Kasei와 Chi Mei의 합작 플랜트 건설은 2002년 3/4분기에 가동에 들어갔고, 出光石油化學과 Formosa Plastics & Cemicals의 합작 플랜트도 2002년 11월에는 상업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는 PC 판매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시아의 신증설로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됐고 유럽도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 아시아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계 생산기업들간에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말에는 Mitsubishi Engineering Plastic의 타이 합작기업 Thai Polycarbonate가 Map Ta Phut 소재 PC 8만톤 플랜트를 완공해 가동에 들어가고, Bayer이 중국 Shanghai 화학공업단지에 건설중인 5만톤 플랜트도 2003년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PC 생산기업들은 유리 대체재 공급을 촉진하는 등 다른 소재의 대체재 전환에 성공하면 시장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규 플랜트가 자리잡기까지는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28>